

시민과학단이 평가한 건물별 ‘배출문화와 수거시설’

서울캠 후마니타스 시민과학단

시민과학단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양과목 ‘시민과학’ 수업을 수강하는 59명의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로 구성된 과학단이다. 시민과학 속 시민은 과학자들과 협업해 생활 영역, 자연생태계, 환경파괴의 현상들을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제공하며 광범위한 분석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시민과학 수업에서는 사례를 학습하며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배우며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경희대로 오는 도로 주변엔 카페와 음식점이 많다. 그곳에서 나오는 행인의 손에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나 테이크아웃 포장 상자가 들려 있다. 벚꽃이 아름다운 교내 정원 벤치에서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즐기는 학생, 수업 시간에 맞춰 교실 안으로 일회용 컵을 가져오는 모습도 보인다. 어느 경우든 학교 안으로 들어온 일회용품은 대부분 학교 안에서 쓰레기로 처리되며 짧은 생을 마감한다.

일회용 페트병 음료를 산 사람은 빈 병을 재활용품으로 배출함으로써, 일회용품을 사면서 생긴 책임을 비로소 벗게 된다. 어쩌다 운이 없는 종이컵은 강의실 창턱에 얹힌 채 소유주로부터 잊히고 만다. 주인 잘못 만난 생수병은 일반 쓰레기통 속으로 던져져 온갖 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가파르게 늘어가는 플라스틱 사용은 전 세계적으로도 큰 문제다. 왜냐면 재활용이 어려운데다, 끊임 없이 미세플라스틱으로 남기 때문이다. 플라스틱 산업은 원료 추출 과정에서부터 제품 제조, 사용 및 소각처리 등 매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기도 한다. 이는 인류가 2100년까지 쓸 수 있는 탄소 예산의 10~13%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이다. 플라스틱 폐해의 주범은 일회용 컵과 비닐봉지다. 그리고 이런 쓰레기가 모이는 곳 중의 한 군대가 바로 캠퍼스 내부다.

그래서 교내 쓰레기 수거시설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가는 매우 중요해진다. 예를 들자. 만일 대학 건물 내에 재활용품 통과 일반쓰레기 통 두 종류만 있다고 치자. 이 재활용품 통에는 “페트병/플라스틱/캔/병류”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다. 이는 쓰레기 배출자인 학생들에게 쓰레기를 두 종류로만 구

분하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후 과정은 청소담당자 몫이고 수거업체 몫이니 학생은 여기까지만 하라는 의미다. 이는 곧 “쓰레기는 쓰레기통에”를 요구하던 옛날의 캠페인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재활용은 버려지기 직전의 물건을 다시 쓰는 것이다. 씻어서 다시 쓰든 녹여서 원료로 쓰든 자원으로 쓰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구분해서 배출하는 것은 바로 사용자의 의무여야 한다. 왜냐면 사용자가 이 제품을 사용함으로 인해 쓰레기를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플라스틱은 생분해가 안 되니 묻을 수도 없고, 태우자니 다이옥신 같은 독성의 대기오염물질을 걱정해야 한다. 사태가 이 정도인데 달랑 재활용품 통에 담은 것으로 면죄부를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 문제에 관한 우리 사회 전반의 의식 수준이 더디긴 해도, 확산해가고는 있다. 자발적으로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여기저기 많이 보이는 사실은 이를 방증한다. 그렇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캠퍼스 안에서 일회용품을 전면 금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 전에 공동체 구성원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어야 한다. 학교의 공감대 형성 시도는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주고 도시를 바꾸는 시너지를 만들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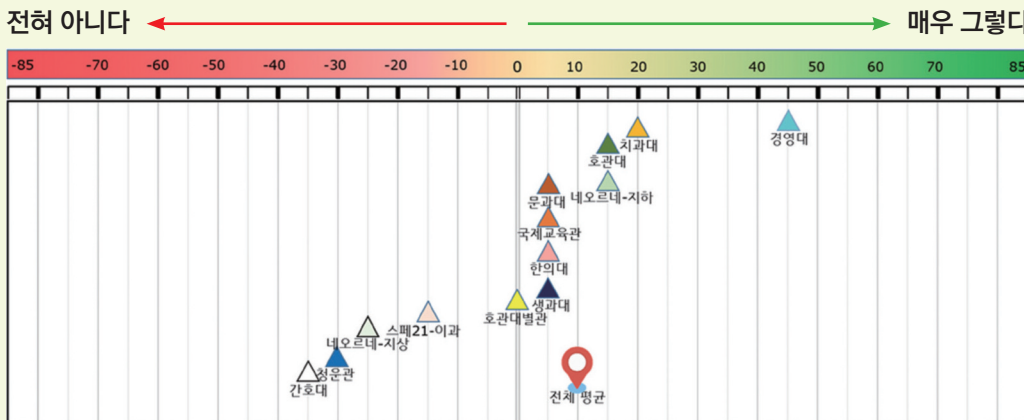
그렇다면 우리학교는 최소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를 구성원에게 던져왔을까. 58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후마니타스칼리지 시민과학단은 학교 안 쓰레기 수거 시설과 그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일회용품 쓰레기를 종류별로 재활용품 통에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돼 있는가?’, ‘재활용품 통 배출을 제대로 홍보 하는가?’ 등을 조사해 보면, 쓰레기 문제를 바라보는 대학의 의식과 대처를 알 수 있다. 학생을 비롯한 소비자의 실천이 중요하다 싶으면, 수거함을 세분해 설치해 놓고 안내와 캠페인에 정성을 들였을 것이다. 그러한 메시지는 캠퍼스를 찾는 방문객에게도 좋은 인상으로 남을 것이 틀림없다.

또한 시민과학단은 건물 단위로 평가하기 위한 항목을 정했다. 평가 항목은 모두 9개로 아래 표와 같다. 평가 항목 유무에 따라 10점씩 가감했으며 5번 평가 항목 중, 종류별 재활용품 배출 통 유무의 경우는 배점을 5점으로 두었다.

시민과학단은 총 12개의 교내 건물을 방문했다. 지하층과 지상층의

순번	평가항목	배점	득점
1	환경보호(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문구가 있는가	있음:10, 없음:-10	
2	일회용품 금지/자제 캠페인 문구가 있는가	있음:10, 없음:-10	
3	텀블러나 다화용기 사용 권장 안내가 있는가	있음:10, 없음:-10	
4	재활용품 종류별 재활용품통배출 안내가 있는가 - 재질별 재활용품통안내 (예: 플라스틱, 캔, 종이, 일반쓰레기 등) - 더 상세한 재활용품통안내 (예: 라벨, 스티커, 뚜껑고리 등)	있음:10, 없음:-10 있음:10, 없음:-10	
5	종류별 재활용품통배출통 유무 - 플라스틱, 캔, 유리, 일반, 종이 등 - 2종류 이상을 한통, 일반쓰레기통	있음:10, 없음:-10 있음:5, 없음:-5	
6	재활용품통배출통 안에 다른 재질 섞였는가?	제대로 재활용품통: 10, 다른 재료 섞임:-10	
7	복도나 교실 등 방치된 일회용 컵이나 물병 유무	없다:10, 있다:-10	

I 교내 쓰레기 저감 위한 대학 건물별 ‘배출 문화와 수거 시설’ 평가 I [재활용 분리배출 및 쓰레기 줄이기]를 실천하도록 돕는가?



최저 점수는 간호대(-35점) 최고 점수는 경영대(45점) 전체 평균은 10점이다.

쓰레기 수거시설과 그 주변을 찾아 조사했다. [재활용 분리배출 및 쓰레기 줄이기]를 실천하도록 돕는지 건물별로 조사한 결과는 위 그래프와 같다.

쓰레기 줄이기 필요성이나 실천 방법제시, 재활용품 통 세분화 등의 여건이 그나마 잘 조성된 곳은 경영대 건물이었다. 종류별 쓰레기통과 안내문을 비치해 종류별로 재활용품 통에 분류하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플라스틱 용기는 남은 음식물을 비우고, 라벨 등 이물질은 제거하고 배출하게 돼 있는데, 이러한 규칙도 잘 안내돼 있었다.

하지만 재활용품 배출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일부 쓰레기통이 발견돼 감점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특히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시키는 메시지는 보이지 않았다. 청운관의 경우, 쓰레기통이 세분화 되지 않았다. 페트병/플라스틱/유리병/캔류 통 하나에 담게 해서 일반쓰레기통과 구분하고 있었다. 일회용품을 쓰지 않도록 하거나 쓰레기 줄이기 등 환경보호 메시지를 담은 캠페인은 아예 없었고, 오히려 학생이 프린트해서 붙인 메시지만 보일 뿐이었다.

평가 결과를 종합해 보면, 쓰레기 배출시설로만 보서는 우리학교 쓰레기 저감 의지는 미약하다. 재활용품을 따로 받기는 하나, 종류별로 배출할 수 없게 만든다. 게다가 쓰레기를 줄이자거나 일회용품을 그만 쓰자는 캠페인도 하지 않았다.

평상시 분리수거를 일상 중에 잘 실천하고 있는 학생이나 방문객은 옳은 방식을 포기해야 하는 모순을 겪게 된다. 시민과학단으로 이번 조사에 참여한 학생 소감은 다양했다. 점점 항목을 정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평상시 무심코 지나친 벽에 붙은 문구 하나하나가 반갑고 중요하게 느껴졌다고 했다. 제대로 버려지지 않은 쓰레기가 많은 점에 놀라며 종류별로 재활용품 통 수거함이 갖춰지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었다.

‘쓰레기 버리기 편한 학교’라는 수식어가 경희대 앞에 붙어서는 안 된다. 도전과 실천이 앞서지 못하는 캠퍼스는 어쩌면 지역사회에 민폐를 끼치고 있는 것 아닌가 짚어볼 일이다.